

2015 8. 09 연중 제 19 주일

제 1 독서 : 열왕기 상 19,4-8 < 엘리야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
제 2 독서 : 에 페 소 4,30-5,2 <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
복 음 : 요 한 6,41-51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와 복음말씀의 주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성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 독서 열왕기의 상황은 예수님이 오시기 800 여년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바알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누가 진짜 하느님인지 그 바알의 사제들과 경합을 합니다. 그 결과는 바알의 사제들이 다 죽게 되지요. 이렇게 하느님의 권능을 보았음에도 이세벨왕비는 앙갚음을 하려고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는 상황입니다. 사실 예언자로서 자살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선지자의 탄원처럼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우리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강론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제가 한달에 한번씩 성체현시를 하고 성체조배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당신자와 공동체전체가 함께 하고 있는 이 성시간에 나오기가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둔다면 미사에 참례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용서를 한다거나, 사랑을 한다거나 성체조배를 한다거나 이 모든것을 등한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한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장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는 바로 그곳에 나의 손과 발이, 입과 눈과 귀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원하십니까? 천당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웃을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싶으십니까? 무엇이 우선인지 형제 자매님들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 독서를 보면 우리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어떠해야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려봅니다. 1 더하기 1 은 2 입니다. 1 곱하기 1 은 몇입니까? 골프공 하나에 골프공 하나를 더하면 두개가 됩니다. 그런데 골프공 하나에 골프공 하나를 곱하면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기란 쉽지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볼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존재하는데 물질적으로 만져지지않는것, 그러나 이해할수는 있고 느낄수 있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1 곱하기 1 은 하나이고, 2 곱하기 2 는 넷이 되고, 3 에 3 을 곱하면 아홉이 된다는 기본 공식이 있어야 7 곱하기 8 은 몇이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이해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한테 8 곱하기 9 가 무엇이냐고 하면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구단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기때문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믿는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의 지성으로써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식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지식이 부족하지 못한것은 인정 하지 않고 하느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하느님은 너무 잔인하신 것 같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느님아버지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는 때로 너무 잔인하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하느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오늘 2 독서에서 바오로사도가 에페소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못났거나 잘났거나, 부자이거나 가난한 이거나 다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장을 받았고 또 견진을 통해서 그것을 굳건하게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증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내 입에서 누구를 헐뜯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바로 그 순간에 나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입에서 용서의 말이 나오면 나는 그 순간 하느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저는 두달 남짓 하느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혹시 누군가가 잘못을 하였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여야 할 때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내 욕심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여야 합니다. 내가 이자리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나만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자기 자신들에게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세례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영께서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시는가? 끝으로 제가 진심으로 형제 자매님들에게 저의 못난 성격과 무지로 잘못을 저지른 것들에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또한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거기에 순명하면서 나날이 노력 하겠습니다. 착하신 우리 공동체 여러 형제자매님들도 하느님의 영을 받아 그분의 가르침에 순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본기도

아버지,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는 교회를 이끄시니,
영원한 생명의 빵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어,
저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고,
빛나는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제 1 독서

<엘리야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에 이르렀다.>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19,4-8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싸리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싸리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 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사십 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9 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제 2 독서

<여러분도 그리스도처럼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30—5,2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송

요한 6,51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41-51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